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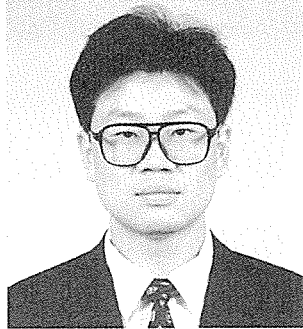
경험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挑戰

대학원의 일상생활들을 한마디로 말하긴 어렵지만 지적 탐구와 인내의 연속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 4년간의 학부생활에서 맛보았던 전공관련 지식들에 대한 일종의 지적 호기심과 더 깊고 풍부하게 알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투자해야 할 시간과 정열은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도록 강요한다. 물론 실제 생활이 일방적이지는 않지만 작은 인내와 열의들이 모여 자그마한 결과들을 축적해 가는 과정이며 때로는 순간적인 판단의 기로에서 고민하기도 하고 쉽고 재미있는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기도 하며 때로는 강단 있는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일련의 일들을 반복하면서 대학원생활의 하루하루가 채워져 온 것 같다.

또한 학부생활과는 달리 사회에 좀 더 가까운 생활들은 실제 사회진출 후의 자신의 생활태도나 대인관계에서 심화내지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게 되고 이를 수용하여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갖고 있다. 물론 인적구성이 바뀌는 사회생활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어진 일과 생활의 질들은 학부생활과는 또한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책임과 의무가 생기고 때로는 이러한 이중생활(학생과 생활인)이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의 아주 큰 부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주위사람들의 인식과 대학

원에서의 실생활에서 오는 괴리감이 난처한 입장에 빠뜨리곤 한다.

일년반 동안의 대학원생활속에서 만난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하나 둘 떠오른다. 특히 늘 도시락으로 점심



추 광 명

(한양대 재료공학과 석사4기)

시간을 함께 해온 연구실 실원들은 또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두 소중한 존재들이다. 92년 봄학기가 시작될 무렵 우리 연구실에는 박사과정 또는 학위 취득자가 4명이었고 석사과정생이 7명이었다. 탄탄한 인적구성과 선배들의 풍부한 경험은 여타 실험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고 우리 연구실이 학과 전체 지식과 정보의 산실로 작용하는 듯 했다. 절로 어깨가 으쓱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곤했다. 때론 어떤 일을 스스로 처리해나가는 데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듯 했으나 대부분은 상황대처에 대한 방법과 절차의 해결방식들을 배워나가는 데 초년생인 나에게겐 무척이나 고무적이

었고 막힘이 없었다. 각자의 경험들이 모여 큰 줄기를 이루고 이 줄기는 후배들에 의해 이어져간다.

일년반의 대학원생활은 많은 변화들을 가져다주었다. 먼저 모든 일의 시작에 앞서 철저한 계획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었다. 제한된 시간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항목으로 자칫 무계획하고 습관적인 연구활동은 시간의 낭비만을 낳을 때가 많다. 미리 사고실험을 통해서 예상될 수 있는 가능한 결과들을 예측하고 돌발적인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련의 실험과정을 기획하는 것은 원하는 실험결과들을 얻기 위한 문제접근방식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된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지 않으면 제 모습을 갖춘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한여름에도 1천℃가 넘는 로(爐)와 씨름해야 하고 때로는 컵라면 하나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지만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묵묵하고 꾸준히 자신의 일들을 수행해 나갈 때 만족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간의 대학원생활에서 나를 단련시켜온 토양이며 이후의 생활에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사람들은 자신있어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일쑤다. 그러한 일들을 모두 피해가려고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싫어한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는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이러한 도전의 생활자세와 계획성, 성실 그리고 창조적 사고가 체계화되어 대학원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나 스스로에게 바란다.